

가난한 마리아의 노래

내 마음 기뻐 뛰노니

첫영성체 교리를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성당엘 갔다. 그리고 교리공부가 끝나면 아이들과 성모상 주변에서 놀았다. 성당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성모상은 담장 밖에 세워져 아래쪽 마을을 바라보고 계셨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인 그 때 성모상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을 감싸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이었다. 또 연로하신 할머니의 성경책 갈피에는 낡아진 펄플릿이 꽂혀 있었는데, 지금의 레지오 단원들이 사용하는 까때나 용 별지였다. 겉표지는 성모님 상본이었고, 안쪽에는 양쪽으로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 해와 같이 빛나며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느니…”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 때 ‘성모의 노래’ (Magnificat)를 보았다는 것이 지금도 설렌다. 신학생 시절부터 매일 바치는 이 기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이다.

역경을 이겨내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성대한 기념도 중요하지만, 신앙인 각자에게는 어쩌면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천상영광에 선행되었던 그분 삶의 십자가와 하느님의 사랑에 근거한 모성적 사랑을 깊이 묵상함도 좋을 듯하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 엘리사벳을 방문할 당시에도 성모 마리아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보인다.(루카 1,26-38 참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인간의 마음이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간직하고 지켜주시는 어머니(마태 1,18-25 참조), 역경을 이겨내신 어머니(마태 1,13-15)로서 구원의 여정에 응답하셨다.

성가정의 사랑을 꽃피운 나자렛의 어머니(루카 2,29-40), 생활의 곤란함을 깊이 배려하시는 위로의 어머니(요한 2,1-12), 예수님께 하셨듯이, 상처나고 뚫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깊이 안아주시는 통고의 어머니이시다. 요한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어머니(요한19,25-27), 열렬한 신앙으로 언제나 성령 안에 머무시는 우리네 다락방의 어머니다. 이렇듯 성모님은 삶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승화시킨 참된 영성생활의 전형이시다.

성모님의 가난한 마음은 하늘에 달을 진실한 믿음과 찬양의 노래로 당신의 삶을 승화시켰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삶이 그만큼 아프고 힘겨웠기에 성모님의 노래는 우리의 경작된 영혼을 흔들고, 신앙의 진실함을 감동적으로 전해준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루카1,48-49)

우리 마음을 사랑의 제물로 봉헌

‘성모의 교황’이라 불리는 교황 비오 12세께서 “원죄가 없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세생활을 마친 후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을 교리로 밝히고 이를 선포하는 바”(Munificentissimus Deus, 1950)임을 천명하신 데에는 이러한 성모님의 신앙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상이 있었음이다.

어릴 적에 스쳐본 이 ‘성모의 노래’를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긴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느님께 의탁하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과 함께 부르는 위로의 노래, 단순한 일상 안에서조차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믿음과 사랑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으로 느껴진다. 이기심과 물질적 가치관으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작금의 세대에 하느님께서 가난한 마리아를 통해 내려주신 내적 치유를 위한 선물이 아닌가 싶다.

- 수원교구 인터넷신문에서

신앙과 이성의 두 날개

성모님상. 왼쪽에 성모님, 오른쪽에 아기 예수님.

어느 신자의 자성어린 고백을 듣는다. “교회정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신자들이 사회적 민주화만을 요구할 때, 본당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교육이 교회 안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회적, 전시적인 교육이나 생활실천과 괴리된 피상적인 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이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회정신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올바른 가톨릭 신앙을 위한 신앙과 이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앙과 이성
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회칙 ‘신앙과 이성’ 서론).

이어서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 곧 당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총명한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종교’에서 “바깥으로 나가 방황하지 말고, 당신 자신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사람 내면 깊은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Noli foras ire, in te ipsum redi. In interiore homine habitat veritas)”라고 권고한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열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내 안으로 돌아가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앙과 이성 두 날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날개가 성하지 않으면 이성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성의 날개가 병이 들면 신앙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신앙과 이성의 두 날개가 건강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로 잘 오를 수 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빛이 교회정신이라면, 이를 갖추기 위해 이성에 근거하여 계시의 초자연적 특성을 거부하는 과장된 합리주의(rationalismus)를 경계하고, 신앙에 근거하여 이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맹신주의(fideismus)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이해하라.(Crede ut intelligas, intellige ut credas)”고 가르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지식은 교회 자신에 대한 명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회칙 ‘신앙과 이성’ 1)”는 점을 일깨운다. 교회가 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제공하면서 올바른 교회정신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이 교육이 교회 자신에 대한 명상 혹은 반성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교육의 뿌리는 전례 집전자나 봉사자 자신의 신앙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계시 진리의 원천인 하느님 말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 진리의 원천을 성경(聖經, biblia sacra)과 성전(聖傳, traditio)이라 가르친다.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과 성전 이 둘을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써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한다”(계시헌장 9항).

공의회는 더 나아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성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 그렇지만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한다”(계시헌장 10항)고 가르친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콩가르(Congar) 추기경은 올바른 교회정신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위하여,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신앙 유산인 성전에 관한 꾸준한 공부의 필요성과, 더 나아가 이 공부를 위해 분리될 수 없는 세 가지 실재인 성경, 성전, 교회를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모님상. 왼쪽에 성모님, 오른쪽에 아기 예수님.

이성효 신부(수원가톨릭대학 교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월31일 봉헌금 내역

2009년 1월31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20.00 교 무 금 : 감 사 금 : \$ 50.00 성전건립 : \$ 성모님동산 (누계):금주\$ 5 (\$5580.00)
합 계 : \$ 770.00

본 당 소 식

◎ 성지가지 회수및 재의 수요일

오는 14일 주일미사 때 까지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성당 정문 입구에 마련된 탁자 위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일 재의 수요일 예식은 본당 사정으로 인해 St. Anthony Daniel 성당이나 가까운 성당을 통해 미사참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미사가 끝난 후 본당 안에 정리, 정돈이 끝나면 바로 소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후 뒷 사람을 위한 정리와 팬 꺼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월 구역모임 안내

- ▶키치너 20일(토) 7시 교육관
- ▶브랜포드 19일(금) 7시 이주현 형제막
- ▶캠브릿지 12일(금) 6시 조성근 형제막
- ▶워털루 1구역 12일(금) 6시 김영규 형제막
- 2구역 13일(토) 6시 고덕근 형제막
- 3구역 13일(토) 7시 정동근 형제막
- 4구역 20일(토) 6시 구본우 형제막

◎ 첫영성체반 모집 안내

공동체의 새싹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날 첫영성체 교리반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Grade 3 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은희 이벳따 자매 ☎ 519-579-0154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공지 사항입니다. 의견을 수렴한 1차 결과입니다.

- 1) 초심으로 돌아가 기도 중심의 모임을 합니다
- 2) 꼭 필요하다면 다과를 준비한다.
- 3) 모임 장소는 순번 교우가 정한다.(집 또는 교육관)

▶다음 모임은 2월 19일 오후7시 이은희 이벳따 자매님집에서 있습니다.

▶기도 지향을 접수합니다.

신청 : 한택중 막시모 (tj1234@catholic.or.kr)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종무 한택중

◎ 아이티 난민 구제 헌금 모금 안내

지진 참사로 고생하는 아이티 난민 구제를 위해 교구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공문이 도착 하였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일에 쓰여지니 전 교우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성금 모금액 누계 : \$731.00

◎ 공동체를 위한 청원기도 안내

* 십자가의 길: 매 주일 오후 4시 15분 본당

(선도자 명단

2월 7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2월 14일- 교육청소녀분과장 노동원 라자로

2월 21일- 관리분과장 이명희 스테파노)

* 목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연도 안내

그동안 바뇨의성모 기도회를 통해 지향해오던 정기회 아네스 자매님의 친오빠되시는 남라파엘 형제가 어제 한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받는다. 고인과 정아네스 자매 가족을 위해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안내/헌금 담당

▶3월 : 워털루 2 구역

▶4월 : 워털루 3 구역

' 네 복이 완전해지도록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집회서 32~36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06호

2010. 2. 7.

연중 제 5주일

해설 노 재현 차주 해설 이 정숙

성 가

입 당 (445) 예수님 따르기로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에
성 체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되 장 (29) 주 예수 따르기로

화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알렐루야

영성체후 묵상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따랐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독	서
2월 7일	박용대	박명옥
2월 14일	안정흠	안미옥
2월 21일	장명길	장용경

봉 헌

2월 7일	노동원	노성은
2월 14일	박용대	박명옥
2월 21일	안정흠	안미옥
(헌금 담당 : 워털루 1구역)		

복 사

2월 7일	안아림	김근영
2월 14일	최예슬	강수현